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4. 22.(수) 14:00
(지 면) 2026. 4. 23.(목) 조간

기본사회 대전환, 중앙행정기관이 한 팀이 되어 실현한다

-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 실시
- 부문별 정책과제 관리방안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 논의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4월 22일(수)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‘기본사회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워크숍’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워크숍은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위촉 이후 마련된 첫 관계부처 합동 워크숍으로,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과 역량결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워크숍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되었으며, 이후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 초청 강연과 중앙행정기관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되었다.

<전문가 특강을 통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기본사회 이해도 제고>

- 먼저 「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, 우수사례」 등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.
- 은민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은 ▲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가치 ▲ 기본사회 국내 현황분석 및 정책추진 필요성 ▲ 기본사회 실현 우수사례 및 과제 발굴방향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.
- 뒤를 이어 「AI 기본사회 실현」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.

- 유재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사회분과장은 ‘AI 기본사회 실현’을 주제로,
▲ AI 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 ▲ 전
국민의 AI기술 혜택 향유방안 등을 소개했다.

<‘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’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정책 추진방향 논의>

- 한편,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**각 부문별 정책과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공유**하고, 관계부처와 함께 **향후 기본사회 정책 추진방향**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.
- 행정안전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기본사회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,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이번 워크숍은 대한민국의 ‘기본사회 대전환’을 위한 업무 담당자들의 추진의지를 확인하고, ‘기본이 튼튼한 사회’ 구현을 목표로 중앙정부가 원팀으로 거듭나는 계기”라고 강조하며,
- “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, 기본사회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앞장서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기본사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유지영 (044-205-3651)
		담당자	서기관	한경모 (044-205-3657)

